



‘벚꽃 명소’ 화순세랑지 단체 출사못한다

내일부터 방문객 통제·동호인 출사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 철저”

벚꽃 개화기가 되면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화순 세랑지에서 단체 출사가 금지된다. 화순군은 30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세랑지 방문객을 통제하고 동호인의 단체 출사

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랑지는 물안개와 산벚꽃이 어우러져 사진 동호인의 단체 출사지로 유명한 곳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사진 동호인들이 방문했다. 개화기인 4월은 사진 동호인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급증하는 시기다.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세랑지 방문객을 통제하기로 했다. 단체 출사를 막기 위해 세랑지 뚝에는 펜스를 설치했다. 세랑지 입구에는 방역 초소를 설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

열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출입도 막을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단체 출사에 나선 사진 동호인들은 장시간 밀접해 사진 촬영을 하는 만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며 “세랑지를 비롯해 벚꽃 명소 관광지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 집중 심리클리닉 지정

성폭력 전문 체계적 상담 지원...전담 대응팀 구성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모한 청소년 고위기 문제 적극 개입을 위한 성폭력 집중 심리클리닉 센터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자 개발한 근거기반(Evidence-Based Practice, EBP) 성폭력 상담 운영모형과 매뉴얼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성폭력 등 고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위기사례관리 대응팀을 구성하고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상담 모형

정립 등이 추진된다. 2021년 ‘성폭력 집중심리클리닉 센터’공모사업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5개소 중 17개소 센터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지역의 23개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 전라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곳이 선정됐다.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가정·학교·사회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운영하며 청소년 전화1388과 함께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시, 市승격 40주년 전시회 연다 ... ‘시정 기록물’ 수집

오는 7월 중 개최 예정...시 행정 관련 모든 기록물 대상 5월 31일까지 기증 방식 수집



1981년 7월 1일 금성시(현 나주시) 시(市)승격을 축하하는 홍보탑과 현수막이 나주시가지(영산포 역 주변)에 설치돼있는 모습.

나주시가 올해 ‘시(市)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시정기록물 전시회’ 개최를 위한 기록물 수집에 나선다. 나주시는 7월 중 전시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 40년 동안 시 행정과 관련된 기록물을 오는 5월 31일까지 수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집 대상은 ‘시 승격 및 정책·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과거사건, 이슈에 대한 사진·문서’, ‘각종 상장과 상패·표창·기념(선물)품’, ‘시장·군수 관련 기록물’, ‘옛 사진(앨범)·업무수첩·월급봉투·신분증을 비롯한 각종 행정사무용품’ 등 나주시 행정의 변천

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다. 시는 민간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기증’ 방식으로 수집한다.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나주시청 누리집(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기록물을 첨부해 시청 총무과 방문 또는 우편(나주시 시청길 22 총무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민간 기록물 수집과 더불어 전라남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상급기관에 보존 중인 시정 기록물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집된 기록물은 전시회 종료 이후 나주시 기록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전시회는 1981년 시 승격 이후 우리 시가 걸어왔던 지난 40년의 도전과 열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담양군, 내달 16일까지 테마 아이디어 공모

담양군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테마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다음달 16일까지 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군민과 공무원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안 공모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대응을 위해 복지, 문화·관광, 경제, 보건·안전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의견을 기다린다. 국민신문고(www.eppeople.go.kr), 군 홈페이지, 우편, 읍·면사무소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우수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돼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곡성군은 4월 말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올해 4월 30일까지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국법인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

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지만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성군 “황룡강서 푸드트럭 운영해볼까?”

군민 대상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권역별로 총 5대 선정

장성군이 황룡강변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며, 권역별로 총 5대를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3월 22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푸드트럭 영업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단, 영업자 별로 1대의 푸드트럭만 운영할 수 있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장성군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운영자로 선정되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지정된 권역(제2황룡교, 문화대교, 서삼장미터널, 장성대교, 힐링허브정원)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